

2018년 11월 28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나주에서 밤신이 바둑돌로 환생해서 제주도로 들어와 좌정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하고 죽었다. 죽은 아기씨의 원혼은 강씨의 딸에게 불어서 굿을 하였고 아기씨의 원한은 풀렸다.

[조사자] 본풀이 골아줍서.

[제보자] 옛날에 굿하는 디 읊이서 다 들어낫인디.

옛날 나주영산이엔 헌 산이 잇었어. 사람 묻은 산이 아니고 한라산 같은. 나주 영산 중허리에 나주 목사가 그 마을 오면 죽고, 그 마을 오면 죽고 허영 삼 년을 못 살았어. 삼 년을 못 사난, 걸출이엔 헌 선비가

“나는 삼 년을 채울 수 잇저.”

허연 목사로 들어왔어. 그 마을에 들어오난, 밤에 누웡 짚이난 어떤 고운 여자가 오랑

“사또님, 나영 바둑이나 두게마씸.”

허난 이제 그 걸출이 선비가

“여자는 꿈에만 시꾸와도 새물이여. 나고 가라.”

허영 보내 불었어. 보내 된 뒷녁날은 처음으로 왓이니까 구경허겐 허연. 말 하나 거느리고 허연 나주 목사 오름덜 산에 올라가는 거라.

“아이고, 사또님아. 이 말을 부립서. 부령 걸엉 그룹서. 이디는 다 무서운 큰 귀신이 잇입니다.”

허난

“나보단 더 큰 어른이 어디 잇느냐?”

몰 채를 탁 한 번 치난 와닥닥 허게 말이 오름드레 올라사난 몰발이 탁 허게 한쪽 저는 거라. 몰다리 절엉 절뚝절뚝 헤가난

“사또님아. 이것이 영겁이우다.”

경허영 말을 부령 그룹센 말허난 말안, 몰 채 딱 치난 할딱 올라가난 몰 발이 절어가난

“이 마을에 본향한집이 잇거든 물발을 좋게 헤줍서.”

허난 급시에 말이 판찍허영 걸었어. 걸엉 가당 보난 나주영산 중허리에 가난 청기와집 안에 고운 처녀가 앗앙 머리를 살살 허게 빗없이난

“사또님아, 저것이 귀신이우다.”

“너는 왜 사람을 놓고 귀신이라고 하느냐? 저건 사람 얼굴 서늉인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게.”

“아이고, 저것이 귀신이우다.”

본 서늉으로 내노니라 본메치로 내노니라 허난 막 큰 청구렁이가 된 거라.

“처녀로 보인 것이 막 큰 황구렁이가 됐던 저것이 귀신입니다.”

말 장남은 경 골으난

“저거는 뱠인디 무사 귀신이 되겠느냐? 이 고을에 활 잘 쏘고 불 잘 놓는 청포수 불르라.”

허난 활 잘 쏘는 청포수를 불르난

“당장 네 귀에 불 불이라.”

허연 베염 봐지는 딜 다 불활로 쏘멍 불 붙엿어. 불 턱 붙이난 와닥닥 불 붙으난 그것이 이젠 바둑이 웨가지고 서울 종로 네거리에 금바둑으로 환생허영 헌거라.

그러난 이제 그 고을에 강씨 성방, 오씨 성방, 하씨 성방 서이 나라에 진상을 잘 바치민 삼 년은 누워도 먹고 앉아도 먹넨 허난, 산으로 가민 초기진상, 죽성으로 가민 산물진상, 해각으로 가민 생복 진상, 매역 진상, 오미 진상 다 헤연 왕 전배독선에 잔뜩 실건 이제 진상 바치레 간 거라. 진상 바치레 가는디 가당 보난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바둑을 봉갓어. 우리 집 가믄 본향도 삼을 만하고

“금바둑이여, 옥바둑이여. 어디 강 음식 먹어그네 이걸로 주게.”

허영 어디 강 밥 사 먹엉

“이거나 받읍서.”

허난

“우린 그거 아이 받습니다.”

아이 받으난 벡장 우트레 던지난 알드레 사락 들어가 부난 이젠 강 진상을 좋은 진상은 좋아지다. 궂인 진상은 궂어지다. 진상을 다 바쳐동 돌아오젠 허난 배가 다시 운전을 못하는 거라. 배가 딱 막아정 운전을 못허난 점 잘하는 심방신디 점 허난, 올 때 눈에 배식헌 게 잇이난 떡밥 헤놓고 화장이 몸 물로 싯곡 허영 배코스를 잘 올리민 배가 간덴 허난, 오라고네 배의 화장신디 몸 목욕허고, 떡밥 다 잘 허영 종이 사고, 떡전에 떡 사고, 밥전에 밥 사고, 배코스를 올리젘 허난, 배코스 올리난 이젠 배를 딱 띠우난 배가 졸졸 가는 거라. 배가 졸졸 가난 이젠

‘서낭으로 바둑 던진 것이 서낭이 뛰었구나.’ 허영 이제 열운이 뒷개로 배를 딱 들이난 배에 영 세우젠 헤가난 배 안으로 고운 여자가 확 허게 내려그네 훈들훈들 가 가난 이제 그 화장이 선주보고

“아이고, 우리 배에 서낭이 내리는 거 닮수다. 고운 여자가 배에 확 내령 저레 값우다.”

“서낭에 내릴 리가 있느냐? 서낭에 내리지 않으곡 본향한집이 있는 거 같다.”

경허영 이제 내령 명함 한 장을 드리난 ‘그 땅도 나 땅이여, 물도 나 물이여, 단골도 나 단골이여.’ 허영 그디 붙으지 못하게 헷어.

“게믄 어디 가민 공현 땅이 잇엉 얻어먹을 디가 잇수가?”

허난

“저 ㅂ름 알로 저 소천국 요왕국으로 내려가믄 공현 땅이 잇저. 그디 강 얻어 먹으라.”

허난 질로 한질한질 오당 보난 열운이 뒷개 넘어 사고 곰배물도 넘어사곡 소 천국이 아들이 저 장기바둑을 두다네

“하이고, 절로 고운 여자 넘어값저.”

뒤로 가그네 홀목에라도 심어 보져. 장기바둑 두당 확 달려강 뒤로 훑허게 홀 목일 잡으난

“아이고, 더러운 놈 심어난 홀목이는 그냥 두믄 안 된다.”

허고 은장도로 장도 칼을 앗아당 홀목이를 짹싹 깎아내연 물멩지로 홀목을 싸 매언. 저 소천국 위에 요왕국으로 강 보난 요왕부인이 소천국 말을 들엇이민 누 워도 먹고 앗아도 먹을 거 홀목이 심으난 널려두고 경혜영 왓젠 허연

“어디 가믄 먹엉 살 디가 잇수가?”

허난 저 우티 산으로 가그네 좌정허영 잇이믄 단골들이 먹으래 나온덴 허난 경허영 잇이난 늦은덕정하님 거느리고 연못디에 빨래를 허레 간 거라.

빨래를 허레 강 빨래를 햅이난, 거멓게 난대선이 배가 떠 와가난

“아이고, 저거 왜놈들 탄 배인디 저 배에서 천리통 다 거느령 천리통도 가진 놈들인디.”

빨래 설러그네 늦은덕정하님허고 허던 서답 확확 걷엉 ‘돈자, 돈자.’ 묵은 선 창, 헌 선창, 갯막굿들로 돈당 보난 펑이 파르르 날라가는 거라.

“아이고, 펑이 눈다. 새가 눈다.”

“아이고, 상전님아. 펑이 놀던, 매가 놀던.”

몸이나 강직허렌. 막 돈당 어육포기 소곱더레 늦은덕정하님은 어육포기 소곱더 레 옴싹 앗아들엉 강직헤지고, 아기씨는 급헌 지멍으로 어육포기 소곱더레 머리 영 곱고 몸땡인 못 숨은 거라. 경허난 그놈들이 와르르 허게 돈물 촛양 들어오난

그놈들이 일곱 놈이 들엉 아기씨는 머리는 어욱 소곱에 감추고 몸땡이는 못 감 추난 뒤로 오라그네 일곱 놈이 이젠 헤여 불엇어. 아기씨는 새파랗게 죽어가난

“상전님아, 골을 말 잊건 골아됨 죽읍서.”

“이만썩 당햇인데 무슨 말 곤겠느냐. 나 죽거들랑 석 달 백 일뒈건 나 늑는 밧 디 머리맡디 상자에 아버지 첫 서울 갈 때 비단 헤 놔뒀이매. 비단을 내 낭 나 간장 풀려줍센 허라.”

헤된 아기씨 죽은 거라. 방 울양 묻언. 상전신다들

“아기씨 왜놈에 죽엇수다.”

허난, 아이고, 한 달, 두 달, 석 달, 삼 년 되어 가난 그 물멩지 허영 간장 풀려도렌 헌 것도 잊어 불언. 게난 사람 죽엉 삼 년 넘어가민 잊어버릴 수가 잊는 거주.

게난 강씨 성방 뚫아기에 들령 막 어루광증을 헤가난, 어디 간 들으난 그 아기 씨 혼령이 들엉 경햇젠허난, 이젠 무당 빌어단 궂을 헌 거라. 궂을 허연 이제 초혼맞이가 되난 입을 빌언 곧는 것이 애기씨가

“나 늑는 머리맡디 궤장문을 열어 보민 아버지 첫 서울 갈 때에 멩지 비단이 잊수다. 그걸 앗아내어그네 나 간장 풀어줍서.”

멩지 비단을 앗안 확확 걷언 보난 베염 죽은 게 비단 속에 과짝하게 잊인 거라.

“이것이 그거로구나.”

경허영 대액을 맞은 날은 ‘액막이를 헤줍서.’ 허영 소를 한 마리 내낳 대액막 이를 허영 고기는 각 당에 적갈 허영 다 올리고. 그레 가믄 무슨 일 허젠허민 소고기 적갈 허영 올리는 거. 경허영 아기씨는 강씨 성방 뚫아기 홀령 방에 짓단 방애 들령 춤추고 헤가난 어디 강 들엉 사남을 헌 거라.

사남을 허난 그 애기씨가 빙이 좋은 거라. 빙이 좋으난 어딜로 가믄 멩지 비단 잇이난 ‘그것이 본메로구나.’ 허영 그걸 웃당으로 모신 거라. 웃당으로 강 모시난 이젠 웃당은 일궤, 알당은 여드레.

경허영 그 근처 사람들은 본향을 잘 위허영 무슨 일 넘어가도 본향에, 초상 넘 어나도 본향에, 멩질 넘어나도 본향에. 토산 우알당이난.

[조사자] 웃당이 일궤마씨?

[제보자] 웃당은 일궤, 알당은 여드레.

- 핵심어: 나주영산, 뱈, 금바둑, 옥바둑, 아기씨, 늦은덕정하님, 멩지(명주), 웃당, 알당, 일궤당, 여드레당, 토산, 김녕, 정의, 본향당, 뜯제, 소